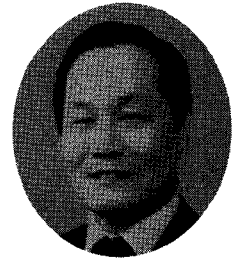


節電과 原電建設

本稿는 지난 8월 16일 경향신문 7면 提言란
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편집자 註)



金 善 昶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副會長〉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들렀다가 「安而思危」라는 액자를 본 일이 있다. 편안할 때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경구이다.

최근 전력수급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서 왜 여유 있을때 대비하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2·3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의 전력예비율은 20%를 웃돌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력설비가 남아돈다고 입을 모았었다.

정부와 한전이 원전11·12호기(영광3·4호기)의 건설을 추진하자 반원전인사들은 전력이 남아도는데도 미국기업들의 돈벌이를 돕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위험설비를 도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었다. 그러다 보니 전원개발 사업은 늦어지고 설비가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맞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여건은 외국에 비하여 훨씬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럽에서는 자국의 전력이 부족하면 남는 나라의 전기를 수입하면 된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이 프랑스의 전력을 수입하는 것은 그 한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남든 부족하던 자국내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말하는 적정예비율 보다 높은 예비전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전원개발이 요구되

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2006년까지의 보다 확충된 전원개발계획을 발표했고 국민도 이를 수용하는 최근의 동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일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수요자측면에서 전기사용의 효율을 높여 같은 양의 전력을 가지고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를 찾아내야 하며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특히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여름철 한나절의 전력사용을 억제하여 피크치(최대부하)를 낮추는 것이 전력난 극복의 요체이다.

둘째는 공급자측면에서 이미 있는 발전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공급능력을 높이는 한편 원전 건설을 필두로 한 전원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재원과 건설입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의 이해와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여기에 더하여 원자력과 같은 첨단설비의 건설과 운영에 알맞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자립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구적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다.

지금쯤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 국민과 정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지혜를 동원할 때이다.